

“상월정신, ‘사부대중 공동체’ 결집 한국불교 재도약”

중앙총회·자비순례단 공동

회향 앞둔 대중공사 현장

한국불교, 어디를 걷고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출가자 감소와 탈종교화에 따른 종교 인구 감소, 사찰 재정난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불교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범해스님)는 10월23일 소노문 양평리조트에서 불교총흥과 국난극복을 발원하는 자비순례단과 함께 ‘한국불교 어디를 걷고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중앙총회의장 범해스님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모두는 출가자 고령화와 신도 감소, 재정 악화 등을 체감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해결해 나갈 종단적 지혜와 실천은 미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상월선원 천막결사 무문관 정진이라는 중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고, 만행결사 자비순례로 이어지고 있다. 자비순례단과 함께하는 대중공사를 계기로 과감한 혁신의 내용과 문수 지혜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중공사는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교역직 스님들로부터 한국불교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총무원장과 종단운영, 포교와 수행력을 두루 갖춘 종단의 지도자급 스님들로부터 이에 대한 진단과 향후 나아가 할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브리핑은 총무원 기획실장 삼해스님과 교육원 교육부장 서봉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정인스님이 맡아, 사찰재정 현황과 미래, 출가자 감소 추이와 현황, 종교 인구 변화 추이와 불자 감소 현황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출가자 감소와 탈종교화에 따른 종교인구 감소, 사찰 재정난이라는 화두에 대해 발표자 스님들도 그 심각성을 사부대중과 함께 공감하고, 심도 깊은 타개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 관심을 모았다.



금곡스님

●총무원장 금곡스님

“교구본사별 재정통합 도입 승려노후복지 문제 해결”

총무원 집행부를 대표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총무원장 금곡스님은 무엇보다 종단의 승려공동체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노후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교구본사별 부분 재정 통합 또는 재정공유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금곡스님은 교구 내 지역별 승려 주거복지 거점 사찰을 지정하고, 거점사찰에 부분재정통합 또는 교구승려복지분담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주거복지 시설마련을 위한 재정적 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가자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출가자 수를 늘리는 것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조계종도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일로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충도 출가 포기자가 나오지 않도록 상실행자교육원을 통해 교육과정을 체계화 하자는 의견을 냈다.

금곡스님은 이날 서울 흥천사 사재를 들어 불자와 일반을 대상으로 한 세부적인 포교전략을 수립하고, 사찰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스님들이 종교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힘든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500km에 달하는 구간을 걷고 있는 자승스님과 결사 대중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며 “만행결사



정념스님

가 한국불교 커다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종단 집행부도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백년대계본부장 정념스님

“시대적 요구 부응하는 불교 한국불교 전통경험 데이터화”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백년대계본부장 정념스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불교는 그동안의 역사적 전통과 경험을 데이터화 해 미래불교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실천적인 방법으로 중증 무진한 디지털 정보문명에 대한 해석도구로 ‘화엄사상’이 중요하게 요청될 것이라는 데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념스님은 이날 “한국사회는 앞으로 30년 후, 10년 후, 5년 후는 과연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그 속에서 불교는 대중들의 요구와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모습을 어떻게 갖춰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종단이나 교구본사는 스스로 갖고 있는 역량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이를 모두 중앙에서 데이터화해 미래 혁신에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시대 비대면의 문화 속에서 불교는 어떻게 생존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념스님은 “궁극적으로 명상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진우스님

“한국불교 정체성인 선종을 받치고 있는 <금강경>을 중심으로 한 경전들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 해, 수행내용과 체계를 다시 한 번 잘 정리해 이에 대한 역량을 잘 갖춘 출가자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원장 진우스님

“종단 재정공영화 등 특단 대책 종합 멀티포교센터 건립 제안”

교육원장 진우스님은 출가자 감소 문제와 고령화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로 꼽고, 특단의 대책으로 주요 사찰들의 모든 수입을 한 곳으로 모으는 종단의 ‘재정공영화’를 제안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전 사찰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가자들의 완전한 수행환경을 보장하려면 자금 재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신도가 줄어들면 분담금 또한 줄거나 동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제안된 내용이다. 이러한 재정시스템이 선순환되어 스님들 복지가 원천적으로 개선되면 출가자도 늘고, 종단도 위력적인 힘을 갖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교육원장 스님은 “가톨릭이나 원불교 등은 규모나 역사적으로 우리와 비교도 될 수 없는 종단들이지만,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위협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며 “시스템 전환을 통해 변화를 갖게 된다면 충분히 힘 있는 종단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



현응스님

한 뒤, 종합 멀티 포교센터를 곳곳에 건립하는 등 포교 활성화에도 획기적인 전환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

“종단과 본사 위상·역할 재정립 유형별 사찰 발전방안 수립해야”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은 중앙종단과 교구본사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종단 체제에 대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리 종단이 단일공동체인지, 교구별 공동체인지의 분기점에 놓였다”는 스님은 “중앙종단과 교구본사의 질적인 역할과 위상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구본사와 말사 등 사찰 유형별 발전 방안 수립에 대한 내용도 제시했다. 현응스님은 “사찰 발전이 곧 종단 발전이므로, 도시사찰과 산중사찰, 전통사찰 등 다변화된 사찰에 대한 발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통사찰 보존법이나 문화재 보호법 등 국가 법령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처님 가르침의 사회 실현을 위해 ‘불교리연구원(가칭)’ 설립도 제안했다. 생명윤리나 생태환경, 기후변화, 현대 산업문명, 대규모 감염병 등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현응스님은 “이번 자비순례가 국난극복과 불교총흥이라는 구체적 주제를 잡은 것은 매우 뜻 깊다”며 “깊은 경의를



덕문스님

표하며, 종단과 불교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

“사부대중 원력과 동참으로 새로운 미래불교 열어갈 때”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불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사부대중 공동체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청난 상황에도 종단 상황 인식과 대응노력은 변화의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한 스님은 우선 코로나19 위기 대처에 대한 통합 대응 매뉴얼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을 강남과 강북교구로 분리하고, 인천지역 교구를 신설하는 등 중앙총무원의 전면적 조직 개편과 총책연구 기관의 통합 및 신설 등도 위기 극복 방안으로 내놨다.

끝으로 스님은 군사정권에 의해 자행된 유례없는 불교탄압 사건인 10·27 법난의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고,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공동체의 힘을 결집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덕문스님은 “만행결사 회향일은 공교롭게도 10·27 법난 40주년이 되는 날이자, 회향 장소 또한 기념관 건립이 예정된 봉암사”라며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사부대중의 원력과 동참으로 미래 불교를 열어갈라는 요청”이라고 피력했다.

양평=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역동적 불교 꿈꾸며 한 발 한 발 내딛었다”

■인터뷰/중앙총회의장 범해스님

“국민들에게 우리 한국불교가 살아있음 보여주는 ‘새 모델’ 결사정신 계승 활동 이어져야”



조계종 입법부 수장으로 제17대 중앙총회를 이끌고 있는 중앙총회의장 범해스님(사진)은 이번 자비순례에 소중한 발걸음을 보태며 “사회 속에 살아있는 불교, 역동적인 한국불교”를 염원했다. 총회의장 스님은 국난극복과 불교총흥을 위한 자비순례가 대구·경북과 충청 지역 순례를 마치고 수도권에 첫 발을 들인 10월21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총회의장 스님은 이날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이은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불교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정계에 빠져있는 한국불교 변화를 위해 역경을 지쳐온 회주 자승스님의 원력에 종단의 중책을 맡고 있는 수장으로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 피력했다. 총회의장 스님은 “탈종교화와 코로나19로 신생활 동도 위축되면서, 이대로 간다면 한국 불교 미래도 밝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며 “한국불교를 살리기 위해 앞장서 계시는 회주 자승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총회의장 스님은 특히 지난겨울 천막결사를 통해 극한의 정진으로 온 몸이

준데 이어 또 다시 만행결사에 나선 회주 스님의 수행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총회의장 스님은 “대구에서 서울까지 많은 대중들을 이끌고 만행결사에 나선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회주 스님은 불교가 대중들 가까이에서 현재 속에 활발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7대 전반기 총회의원 연수를 자비순례단과 함께하게 된 까닭도 바로 이런 점에 있다. 스님은 “부처님 법에 의지해 살고 있는 수행자는 시주의 은혜를 갚기 위해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바로 이것이 불교총흥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한국불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 선배 스님들이 앞장서 두 다리 걸으며 만행결사를 펼치고 있는데 후배인 총회의원 스님들도 이런 모습을 닮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으로 참석해 보니 고난의 길임을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수행자는 지혜를 추구하는 집단”이라며 “한 발 한 발 움직이며 한국불교의 현재를 여실히 바라보며 스스로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우리 불교가 현재 속에 살아있음을 보여줬

면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스님은 이번 자비순례가 “한국 불교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스님은 “행선 수행을 해보니 천천히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날마다 보면서 가게 되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실수도 덜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번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정신을 좀 더 많은 대중들과 나눌 수 있는 활동들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의 매년 부처님 생신을 순례했다는 총회의장 스님은 부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걸으며 위대한 스승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 가르침을 되새기고 싶어 인도 만행결사에 대한 원력을 세우게 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루 평균 20~30km, 길게는 36km에 달하는 거리를 이른 새벽부터 낮까지 걷고 나면 건강한 젊음이라 할지라도 피곤치가 된다. 총회의장 스님도 이번 순례에서 종종 지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출발을 앞둔 신호가 울려 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대중들에게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총회의장 스님은 “딱 삼일 째 되는 날 고비가 왔었다. 그때 과연 문경새재 이화령을 넘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지만 회주 스님을 비롯한 결사대중 스님들 덕분 무사히 여기까지 왔다”며 “순례 11일째인 10월17일 이화령을 넘으며 완주에 대한 확신과 용기가 생겼다. 고난의 행군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 봉사단에 정말 고맙다”고 했다.

여주=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만행하며 받은 따뜻한 마음 모여 불교총흥”

■인터뷰/만행결사 총도감 호산스님

“자비순례 소식 듣고 찾아온 불자 길에서 합장하는 많은 시민들 한 분 한 분 귀한 인연에 감사”



불교총흥과 국난극복을 위한 자비순례 회향이 눈앞에 다가왔다. 10월7일 대구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입재식을 봉행할 때 만해도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스스로 반신반의하던 총도는 이제 자신감이 찬 발걸음으로 움직이는 불교를 실천하고 있다. 회향은 1주일 앞둔 10월21일 여주 금모래캠핑장에서 총도감 호산스님(사진)을 만나, 상월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동안기 때 상월선원 천막결사를 원만하게 성만하면서 한국 불교수행의 역사를 새롭게 쓴 주인공인 호산스님은 이번 만행결사에서 총도감 소임을 맡아 살림을 책임지고 있다.

만행결사는 지난 겨울 상월선원 천막결사로 인해 이뤄졌다. 당시 상월선원에는 정진하는 아홉 스님 외에 전국에서 스님과 불자들이 찾아왔다. 천막법당에서 야단법석이 벌어지면서 불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산중이 아닌 신도시 한복판에서 선을 찾고 또 흥겹게 생활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됐다.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출발부터 사부대중 공동체임을 표방한 것은 이런 경험에서 비롯됐다. 물론 총도감으로서 호산스님은 부담이 컸다. “개성 강한 사부대

중이 모이다 보니 처음엔 기대도 되고, 살림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컸다”고 한다. 입재하고 3~4일이 고비였지만 잘 넘기고, 8km 오르막길을 올랐던 이화령 고개, 최장코스였던 35km를 걸으며 마지막 10km를 남기고 쉬지 않고 행선하며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됐다.

동참 대중 역시 마찬가지다.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가 함께 있다 보니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다. 또 일정이 거듭될수록 부상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부는 차량 이동을 하기도 하지만, 텐트 생활을 함께하며 회향일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스님은 동안기 때 도심 복판 천막 안에서 자신을 가두고 정진했던 때와 달리 지금은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순간 감동을 받는다고 했다. “오늘 새벽 총수를 지나며 100년 된 샘밭정미소를 지났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미소를 내주기도 쉽지 않았을텐데, 정미소 사장이 스님을 잠깐 쉬어갈 수 있게 정미소에 자리를 깔아주고, 화장실도 깨끗이 청소해 놓았다. 또 스님들 공양하러 막 두정만 쓸까지 보시해 정말 고맙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스님은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수행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법을 전하기 위해 1250아라한과 전도의 길을 나서면서 문제가 생기면 청규를 정하고, 대중을 이끌기 위해 소인자도 정했는 것이다. 또 많은 불자들이 공양을 청했던 걸 떠올리면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다.”

순례 기간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순례단이 머무는 곳마다 찾아와 지역 특산품을 공양하는 스님과 불자들부터 거리에서 스님과 불자들을 보며 합장 인사하는 시민들, 고행에 나선 스님과 불자들을 보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스님들이 행선하는 모습을 본 마을주민이 음료수를 들고 찾아왔다. 스님들이 묵었던 캠핑장 사장이 다른 캠핑장을 찾아와 난로를 빌려주고, 언 몸을 녹이려 장작불을 지펴주는 일도 있었다. 도갑 스님은 순례단에 들어온 많은 공양물을 숙영지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보시행도 실천한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스님은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수행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법을 전하기 위해 1250아라한과 전도의 길을 나서면서 문제가 생기면 청규를 정하고, 대중을 이끌기 위해 소인자도 정했는 것이다. 또 많은 불자들이 공양을 청했던 걸 떠올리면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다.”

호산스님은 이런 모습이 전기 순례의 희망이라고 했다. 작은 마음이 모여 불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수천 대중이 순례에 동참했는 것이라 생각도 했다. 스님은 움직이는 불교, 역동적인 불교가 되기 위해 사부대중이 첫발을 떼면 만큼 앞으로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순례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스님은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마음을 바로 세우고, 회향일까지 정진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여주=어현경 기자 eonald@bulgyo.com